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2026 나눔 릴레이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5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와 함께 '2026 나눔 릴레이 캠페인' 행사를 열고 지역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전북은행은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19년간 총 3억8,000만원을 후원해왔으며, 이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특별회원증을 전달받았다.

이날도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JB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전북은행은 매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의 이동 헌혈버스를 지원받아 헌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오상근 기자

'우리가 바라본 세상'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사진전
13일까지 도청 1층 기획전시실서

발달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은 특별한 사진전이 전북도청에서 열리고 있다.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은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이 직접 찍은 사진전 '우리가 바라본 세상'을 개최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 34명이 지난 1년간 교사들과 함께 도내 아름다운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촬영한 사진 작품들로 꾸며졌다.

이번 사진전 참여자들은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전시 작품을 스스로 선정하고, 제목 또한 본인이 정해 의미를 더했다.

현효미 센터장은 "처음에는 카메라 작동법조차 낯설어하던 분들이 이제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자연스럽게 촬영에 나선다"며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망설임이 없고 자신만의 표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치유 프로그램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표현하는 경험에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현 센터장은 "치유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여가 선용,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 더 큰 취지"라며 "사진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무료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정읍 13개 마을서 이어지는 대보름 행사 순항

정읍시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고유의 세시풍속인 당산제와 대보름 행사를 지역 내 13개 마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잊어가는 전통의 명맥을 잇고 있다.

이번 대보름 및 당산제 행사는 지난달 19일 칠보면 원백암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북면 원오류 마을을 끝으로 약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5일 기준 현재까지 관내 10개 마을에서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아직 3개 마을의 뜻깊은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각 마을에서는 주민과 출향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달집태우기, 지신뱃기, 용쫓기, 당산굿 등 다채로운 전통 세시풍속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올 한 해의 무사 안녕과 풍년 농사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 점차 멀어지는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결속을 다지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평통 전주시협, 2026년 1분기 정기회의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협의회장 이강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전주 치명자(상성) 평화의전당 유향검출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실 회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 국영은 전 도의회의장 등 자문위원 328명이 참석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이강민 간사의 사회로 등록 및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평화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토론과 사업계획 추진사항 의결 및 이강실 회장의 강 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강실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격려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운동과 무오독립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독립선언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만세삼창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



진 방향을 주제로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이강실 협의회장이 강연과 함께 토론 주제 설명을 맡아 참석자 전원과 함께 진지한 토론과 온라인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 전주시 협의회 주요 현안 사업 보고와 함께 민주평통 SNS 홍보 및 참여 안내가 이어졌으며, 조영수 기획홍보분과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임실군, 병오년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임실군은 지난 3일,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군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병오년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유산인 필봉정월대보름굿이 열린 강진면 필봉마을을 비롯해 우수면, 삼계면 등 임실군 내 12개 마을에서 일제히 펼쳐졌다.

올해로 45회를 맞이하는 필봉 정월대보름굿은 필봉마을에서 행해져 오던 마을굿과 함께 한 해의 목은 액을 털어내고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기과 당산제, 샘굿, 마당뱃기, 관공 순서로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임실필봉농악의 정수를 알 수 있는 흥겨운 판을 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한 해 소망을 담은 소지가 달린 달집을 활활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달집태우기를 재현하고, 달집을 태우기 후, 다시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대동놀이 굿판으로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푸진 굿판이 이어졌다. /임실=진홍영기자



전북대병원, 신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신규 전공의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 의료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병원 측에 따르면 4월 본원 지하 1층 모악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올해 수련을 시작한 인턴 41명과 레지던트 22명 등 총 63명이 참여했다. 병원은 수련 초기 단계부터 책임 있는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료윤리, 협진 시스템 이해 등 필수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신규 레지던트 교육은 수련제도 안내를 비롯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료법과 윤리, 협진 및 회소체계 이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난도 중증질환과 암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인턴 교육 역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심폐소생술 표준주의 및 감염관리, 전산 시스템 활용, 의약품 관리, 의료분쟁 예방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임상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오상근 기자

유익시 완주군의회, 노인회 완주지회 공로상

완주군의회 유익시 의장이 5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정기총회 및 지도자교육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유 의장은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 확대와 경로당 운영 지원,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동안 유 의장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개선과 운영 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 및 지도자교육에는 지역 노인회 지도자와 회원들이 참석해 한 해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노인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2026 귀농귀촌 기본교육 개강식

김제시는 지난 4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김제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교육생 40여명과 함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교육은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초기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실무 역량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이다. 귀농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영농 창업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8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업의 이해, 작목별 재배기술, 농업경영 및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이론과 현장 교육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귀농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동동,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추진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관내 2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소통간담회를 추진,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요 시정 현안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제9회 춘향제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분철 산불초소기간 알림 △통합문화이용권, 민집철거 지원사업 등 복지정책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정 정보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정보도 함께 전달해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26년도 주민수원사업과 농로·용배수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김제경찰, 새학기 맞이 안전 합동 캠페인

김제시는 새 학기를 맞아 지난 4일,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김제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본 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아동 범죄에 대한 보호자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효근 도시건설국장장과 직원 김제경찰서 서장관과 직원 일동,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중앙초등학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및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정효근 도시건설국장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전 인식을 높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김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경찰 흥덕파출소, 신학기 청소년 보호활동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흥덕파출소(소장 박주연)은 신학기를 맞아 관내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성내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방문하여 청소년들 대상으로 최근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사이버 도박,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의 종류 및 대처·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 등으로 신중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인근 상가 등을 방문해 업주에게 신분증 위·변조 및 부정 행사 등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신분 확인을 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시골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이 어두워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은 유관기관에 가로등 설치 및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자율방범대에도 협력해 다각적인 안전방역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상반기 경로당 건강관리 추진

정읍시보건소가 관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지역 경로당 56곳을 직접 찾아가는 '상반기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5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TBM(Talk Box Meeting) 실시 철저 △신규·기존 근로자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건설기계 작업 시 접근금지 및 신호수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건설현장 5대 안전수칙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2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컨설팅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작업 전 안전점검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5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TBM(Talk Box Meeting) 실시 철저 △신규·기존 근로자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건설기계 작업 시 접근금지 및 신호수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모집

남원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소중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철선·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전에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대장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3월 25일까지 농경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